

남구, 취약계층에 난방비·생활용품 등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 활용 불교계·기업 등 후원품도 지급

광주 남구는 겨울 한파를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에 생활용품 지원에 나섰다.

3일 남구는 저소득 돌봄 이웃을 비롯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이 겨울 한파 근심을 덜 수 있도록 혹은 난방 물품 지원사업과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 3700만원을 활용해 겨울철 혹은 취약계층 난방비·난방 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돌봄 이웃 332세대다.

생계가 매우 곤란한 150세대에는 난방비 10만원 지원, 공동생활가정과 복지관 등 82세대에는 14만5000원 상당의 전기장판을 제공한다.

행복멘토링 대상자를 포함한 돌봄 이

웃 100세대에는 겨울용 이불을 각각 지원한다.

남구는 구비 800만원을 투입해 크리스마스를 위한 생크림 케이크 50개와 쌀 10kg 68포, 육류 80팩을 구매해 한부모 가정 5세대와 장애인 36세대, 돌봄 이웃 44세대,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아동 36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먹거리는 이달 초부터 지급된다.

연말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 모인 각종 후원 물품은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지급한다. 불교계와 기업체,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후원한 물품은 이달 중으로 배포된다.

남구 관계자는 “겨울 한파를 이겨내는 힘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쏟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주민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상이 인턴기자 sanga.jeong@jnilbo.com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하남효사랑·광산시니어클럽

사단법인 하남효사랑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광주 광산시니어클럽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 100여명과 함께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임직원 및 봉사자들은 4일간 배추 쪄개기, 절이기, 양념 만들기, 버무리기 등 작업에 참여하고 하남효사랑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64세대와 취약계층 16세대 등 총 80여 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광산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영농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재배한 배추와 국내산전갈, 국내산 고춧가루, 소금 등을 구입·사용했다.

한편, 사단법인 하남효사랑과 광산시니어클럽은 매년 김장 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

제22회 문화예술제 성황

광산구 첨단복지관

광주 광산구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달 30일 ‘제22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첨단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제는 올해 한해 주민이 복지관에서 학습하고 익힌 재능을 이웃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정리·소통의 장이다.

예술제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가한 회원들이 그린 작품을 전시한 점단갤러리를 비롯, 플래시몹과 난타공연 등이 진행됐다. 문필동첨단종합사회복지관장은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광주 광산구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달 30일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제22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광산구 제공

북구 ‘생활불편 신고센터’ 민원해결·소통창구 기여

민선7기 이후 28개동 설치

광주 북구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생활불편 신고센터’가 주민 민원 해결과 소통창구로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생활불편신고센터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북구 28개동에 설치돼 있다. 주민 신고와 사전 순찰 활동 등으로 지역민의 불편사항이나 안전 위험 요소를 파악·해결하고 있는 생활 밀착형 시책이다.

신고 처리 대상은 쓰레기 투기, 불법 광고물, 이면도로·보도 파손, 교통시설물

정비, 각종 공사장·옹벽 등 안전 위험 시설물 등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되거나 파악된 주민 불편사항 중 경미한 사안은 즉각 처리, 처리가 어려운 경우엔 구청 소관부서에 실시간 이관한다. 소관부서에서는 접수받은 불편사항을 기동처리반 등을 통해 3일 이내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에 중장기 시간이 소요되거나 여러 부서가 연계된 복합민원은 부구청장이 주관해 처리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생활민원에 대한 사안은 체계적 분석을 통해 사후 관리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생활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0만4308건으로 이 가운데 10만2587건(98%)이 해결됐다. 해결 못한 신고 역시 논의 중이거나 중장기 사항으로 집중관리 되고 있다.

민원 신고 등을 원하는 주민은 북구 누리집·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접수하거나 대표번호(062-410-8282)로 전화해 불편사항을 전달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지역민 공감하는 소통 행정’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서구, 걷기사업 공유회

최우수 광천동 선정

우수 서창동·동천동

광주 서구는 지난 1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2023년 걷기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구 걷기 사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맨발걷기동호회원, 걷기지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구는 걷기 문화 확산에 기여한 광천동(최우수), 서창동·동천동(우수), 상무1동·양동·화정2동(장려) 총 6개동을 우수 동으로 선정했다.

서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걷기 챌린지, 걷기한마당 등 사업을 추진했다. 걷기 챌린지 사업은 총 16회 동안 2만3400명이 참여했으며 5200명에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새봄·서창·맨발로 걷기 한마당 행사에는 1000명이 참여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내년에도 걷기를 통해 서구민이 나날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맨발로 관리 등 걷기 인프라를 잘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걷기 활성화를 위해 △상무시민공원 △금호·쌍학·농성·맛고을·공룡어린이공원 △동천동 완충녹지 △전평제수변공원 △백마산생태습지 △상록근린공원 △금당산 등 총 15곳에 맨발로를 조성했으며, 내년까지 18개 전체동에 맨발로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강주비 기자

서구, 57개 공중화장실 주민·경찰·공무원 합동점검

광주 서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지난달 13~30일 공중화장실 57개소에 주민·공무원·경찰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공중화장실이 안전하다는 인식제고와 함께 불법촬영 여부 사전점검 및 시설개선으로 디지털 성범죄 발생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요소는 △비상벨 작동상태 △112신고 시스템 POI(Point Of Interest)누락 여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및 촬영 방지 안심스크린 적정설치 △기타 창문, 잠금장치 및 구멍 등이다.

서구는 분기별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정기점검 및 명절 연휴 대비 특별점검 등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 공중화장실 여자칸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스크린(가림막)을 설치 완료하는 등 안심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박종철 서구 기후환경과장은 “서구민과 서구를 찾는 주민들이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성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동구, 학생들과 ‘통기타가 있는 행복 콘서트’

광주 동구는 최근 구청 대회의실 무대에서 ‘제2회 1인 1악기, 통기타가 있는 행복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통기타 콘서트는 관내 6개 초등학교 127명의 학생이 참여해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Seven’ 등 최신곡부터

‘캐를 메들리’,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등 곡을 연주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통기타’를 통해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이었으며 “더 큰 세상에서 꿈과 목표를 위한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모든 학생이 악기를 배울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1인 1악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4개 초등학교 97명을 대상으로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5년째를 맞는 이번 사업은 10개 초등학교 630명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송민섭 기자

경학실습학점제 수료식

광주 남부경찰

광주 남부경찰이 예비 경찰관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진행한 경학실습학점제를 마무리했다.

3일 남부경찰은 지난달 30일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경학실습학점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학실습학점제는 경찰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경찰관서와 연계한 실습 중심의 교과를 편성한 것으로 이번 실습은 지난 9월부터 10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남부경찰은 수강 학생들의 경찰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론 교육 △지역관서 실습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문 △시뮬레이션 자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문병조 광주 남부경찰서장은 “학생들이 경찰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공동체 치안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상이 인턴기자